



홍대앞서 펼쳐진 책잔치, 제8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책, 청춘을 껴안고 돌아왔다!

제8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홍익대 주차장거리와 견고싶은거리, 복합문화공간, 북카페 등에서 열렸다. '책, 청춘을 껴안고 돌아왔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북페스티벌은 책 속에 담긴 다채로운 청춘의 열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한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마포구,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파란미디어 후원,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장비공간이 협력한 이번 행사에는 80여개 출판사 및 서점, 문화관련 단체, 커뮤니티 등이 참여했다. 특히 와우북 판타스틱 서재(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등), 와우북 상상만찬(전시&퍼포먼스 등), 거리로 나온 책(거리도서전, 와우책시장, 어린이책놀이터, 사랑의 책꽃이) 등이 큰 주목을 받았다.

와우, 이오덕선생을 그리다

이번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서는 대안교육으로 유명한 이오덕 선생을 되돌아보는 특별행사가 다양한 형태로 펼쳐졌다. '여

전히 대안교육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민들레 출판사와 함께 대안교육 1세대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과 홍대앞 미술학원생인 청소년들과 작가 이영리가 함께 이오덕 선생의 책을 읽고 자유롭게 표현한 '이영리 작가와 미래 아티스트 서평전' 등이 열렸다. 이밖에 '글씨, 청춘을 껴안다'에는 강병인 작가와 '술통'의 젊은 캘리그래퍼들이 참가해 청춘의 열정과 도전을 표현한 캘리그래피 작품도 전시됐다.

홍대에 있는 3200여개 출판사가 한자리에

홍대 앞 거리를 채운 '거리로 나온 책'은 특별행사 '청춘, 독립출판시대'로 독립출판·잡지의 숨은 열정을 기획부스로 선보였다. 또한, 독립출판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청춘, 인디펜

던트데이' 파티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그 시절 청춘의 모습과 그들을 흔들었던 책이야기를 나누는 'Dear. 청춘, 내 인생을 움직인 책'이라는 섹션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관계자는 "홍대 인근지역에는 3200여개의 출판사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들 출판사의 열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이들의 뜨거운 책과 문화예술의 열정을 만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판타스틱 서재'

가장 큰 인기를 모은 행사는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국내의 문학과 출판계 이야기를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와우북판타스틱 서재'였다. 김재훈 작가, 소광숙 작가, 임종진 사진작가가 사진과 글로 일상을 담고 기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사진, 책을 만나다>, <날마다 나를 찾아가는 길, 사진일기>, <만화가 앙꼬에게 듣는 나쁜친구 이야기>, <최민석 작가의 능력있는 북콘서트>, <정철윤이 청춘에게 고함: 나를 재발견 하라>, <이신조 작가의 스물둘 우리의 특별한 오후 두시>, <김보영 작가의 환상문학의 세계로>, <이동진의 빨간 책방 북콘서트>, <임경선 작가의 엄마와 연애했 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책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풀어보는 '와우북 상상만찬', MASTER BRIDGE가 팝아트와 인쇄매체, 조각, 애니메이션, 토이 아트, 음악 등 기존 예술의 경계를 뛰어 넘어 책과 함께 표현하는 <Masters MASTER BRIDGE 예술공장> 공연 등이 열렸다.

도심한복판 어린이책놀이터

매회 축제가 열릴 때마다 큰 인기를 모은 '와우종이 책놀이터'는 도심 한복판에서 책과 뛰어 놀 수 있는 열린 책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동화>, <어린이 도서연구회>,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들려주는 <에코팝과 함께 몽골, 아프리카 책 여행>, 신나는 영어동화세상으로 떠나보는 <이춘 선생님과 신나는 영어동화세상>, 어깨가 들썩이는 판소리를 신명나게 만나볼 수 있는 <판소리로 듣는 동화세상!>, <땡까땡까 종이기타, 리본링스 만들기>, <지지고 볶고 장난치고 즐거운 우리놀이!>, <보드게임 세상속으로~>, <숲속 식물로 생활용품 만들기!>, <원목 DIY 장난감 만들기!>, <어머니도서연구회와 함께하는 책놀이!>, <PAGEBE와 두근두근 캐릭터 그리기> 등 각종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역주민 참가한 '와우책시장'

책 베품시장이인 '와우책시장'은 책을 통해 지역주민, 일반 시민,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새로운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책·문화 베품시장이자.

'와우책시장'은 책과 추억을 직접 트렁크 속에 담아 떠나는 <트렁크 속 작은 책가방>코너를 통해 도심 속 기을소품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도 직접 책 관련 소품을 독창적인 수공예 작품으로 만들어 <와우북숍>에서 판매했다.☺



이번 북페스티벌은 책 속에 담긴 다채로운 청춘의 열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한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